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99

부활하신 예수님

(마태복음 28:1-15, 마가복음 16:1-13,
누가복음 24:1-35, 요한복음 20:1-18)



**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
새벽녘이었어요.**

**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
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죠.**

**“오늘은 반드시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
발라드릴 거예요.”**

**“그게 우리 뜻대로 되겠어용?
무덤 앞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잖아요!”**

**“어디 경비병 뿐이겠어...?
무덤을 막고 있는 그 커다란 돌문을
우리 힘으로 어떻게 움직이나구...”**

**여인들이 걱정 속에 무덤 입구에 다다랐어요.
몇 발자국 떨어져서 경비병들의 모습을
지켜보고 있는데 그때,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
강한 지진이 일어났어요!**

**그러더니,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가
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려왔죠.**

“아이고 깜짝이야! 뭐, 뭐야! 넌 누구냐!!”

“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! 귀신인가 보구나!!”

**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천사의 모습을 보고
너무 무서워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.**

**천사는 가쁜하게 무덤 돌문을 열고
여인들을 무덤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죠.**

**“두려워하지 마라.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
예수님을 찾고 있단 걸 알고 있단다.
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.
말씀하신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지.”**

**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두려웠어요.
천사가 계속해서 말했죠.**

**“너희는 서둘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거라.
그들에게, ‘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
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
그 곳으로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’고 말해주거라.”**

여인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어요.

**방금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았지만
이 소식을 서둘러 제자들에게 전해야만 했죠.**

**“뭐, 뭐라구요?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구요?”
놀라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
부리나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.**

**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님의 몸은 온데간데 없고
시신을 덮고 있던 고운 베로 된 천만이 남아있었죠.**

**그제야 두 사람은,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
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.**

**제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에서
흐느껴 울고 있었어요.**

**마리아가 잠시 무덤 안 쪽을 들여다보았더니
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
이번에는 두 명의 천사가 앉아 있었죠!**

“여인이여, 왜 울고 있습니까?”

**“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로 가져가서
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 울고 있습니다.”**

그 때 마리아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.
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 있었죠.

“여인이여, 왜 울고 있느냐?”

마리아는 그 사람이, 무덤을 지키는
관리인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

**“저.. 혹시 당신이 여기 계셨던 분을
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나요?
그렇다면 어디로 옮겼는지 말씀해 주세요.
제가 모셔오겠습니다..!”**

그러자 그 사람이 부드럽고 강한 목소리로
마리아를 불렀어요.

“마리아야!”

그 목소리는 틀림없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!
마리아는 곧장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.

그런 마리아에게
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!

“마리아야.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
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주거라.”

마리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어요.
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죠.
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
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힘껏 달려갔답니다!

한편, 무덤을 지키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된 경비병들은
정신이 들자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.

**“정말 저희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가요!
갑자기 지진이 일더니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요!”**

**“저희가 정신을 차렸을 땐 무덤 입구는 열려 있고
예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!”**

**대제사장들은 고민에 빠졌어요.
만에 하나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라면
그땐 백성들이 예수를 진짜 구세주로 인정할 테니까요!
그래서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큰 돈을 쥐어주고는 이렇게 말했죠.**

**“너희는 지금부터 온 성 안에 소문을 내거라.
예수의 제자들이 간밤에 예수의 시체를
훔쳐갔다고 말이다. 에잉...”**

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거짓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
예수님께서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.

“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?”

그들은 예수님을 뒤돌아 봤어요.
하지만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알지 못했죠.
그 중에 ‘글로바’라는 사람이 대답했어요.

**“뭐긴 뭐겠소. 지금 장안에 화제인 예수님 이야기죠.
우리는 그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실 거라 믿었소.
하지만 그 분께서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지요.**

**그런데 돌아가신지 사흘째 되던 날
놀라지 마시오.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
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겠소?”**

다른 제자도 옆에서 거들었어요.

**“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들 합디다.
그런데 소문을 듣자하니 제자 중에
누군가가 그분의 시신을 몰래 훔쳐 갔다고도 하던데...”**

그 때, 두 사람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
그들을 나무라셨어요.

“너희는 어리석고,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
믿지 않는구나.

그리스도 구세주가 이런 고난을 받고
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말 모르느냐!”

두 제자는,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.
다만 눈앞에 있는 분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
엠마오 마을에서 저녁을 드시고 가라고 초대했죠.

그날 예수님께서서는, 두 제자들에게 직접 빵을 나누어주셨어요.
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주셨죠.

“이걸 먹거라. 이것은 나의 몸이란다.”

그리고 그 순간,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면서
비로소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.
하지만 그 땐 이미, 예수님께서 순식간에
사라지신 뒤였답니다!

**“이보게 정말 놀라운 일일세.
아까 길에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부터
내 마음이 막 불 타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기분이었네..!”**

**“맞네.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게야.
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어!
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라구!!”**

**두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,
가롯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열한 제자에게
어서 알리기로 했어요.
마침 그날 밤, 제자들은 어느 한 다락방 안에
모여 있었답니다!**

과연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을 수 있을까요?

꿈에서 깬 요셉은,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

**“마리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
가지게 되었구나!
마리아를 의심하다니 내가 어리석었어.
하루빨리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리고
그녀와 아기를 잘 보살펴 줘야겠어...!”**

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가 되었어요.
그리고 한 달, 한 달 시간이 흐르면서
사람들을 구원할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까워졌답니다!